

어촌뉴딜 선도사업 사례: 머물고 싶은 달섬 만들기, 목포 달리도

김주경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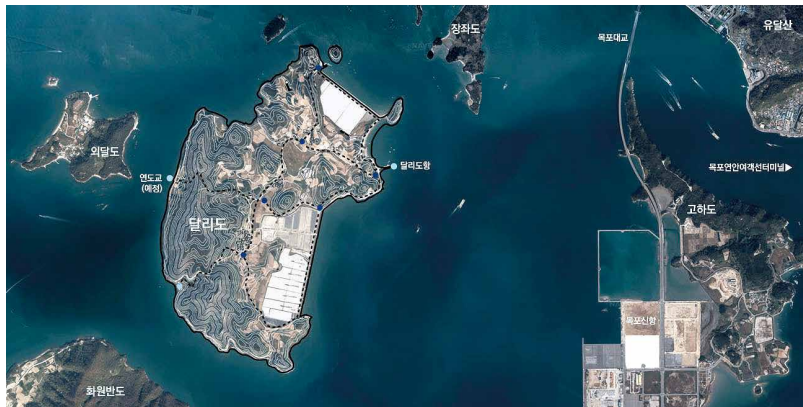
들어가며

달리도는 목포 앞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작은 섬이다. 모양이 달과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이 섬은 목포의 유인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높다. 한때 500여 명에 달했던 섬 거주 인구가 현재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벼농사 중심의 농경문화와 갯바위 낚시 등 어업활동이 공존하는 ‘생활의 섬’이다.

달리도에 가기 위해서는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페리선을 타야 한다. 30분이 소요되고 하루 네 번 왕복하는 정기선박으로 달리도는 육지와 이어져 있다. 생필품을 시내에서 구입하는 등 스스로 목포 생활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섬주민이 적지 않아, 방문자들은 섬 특유의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보다는 도시인의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방문자들이 달리도를 처음 찾게 되면 당황하기가 쉽다. 이 섬에는 이방인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숙박시설이 없고 매점이 없으며 공중화장실이 없었다. 당연하게도 이 섬을 찾는 이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다시 찾지 않게 되는데, ‘달리도의 관광객’이란 말은 현재의 조건에서는 형용모순이라 할 수 있다.

내륙의 농촌마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달리도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시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섬 내 큰



달리도 위치

출처: 다음지도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섬전이 활황이었을 때는 임노동으로 살던 외지의 인부들이 섬 곳곳에 거주하면서 작은 숙소, 다양한 점포 등 각종 편의 시설이 많았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섬전 산업과 김 양식장의 생산성이 떨어지자 인부들은 섬을 떠나게 되고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 뒤 주민들은 20여 년간 이것들의 부족을 견뎌오고 있었던 셈이다.

어촌뉴딜사업의 시작

달리도의 어촌뉴딜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달리도 서쪽 인근의 외달도가 해수풀장을 중심으로 관광 섬의 정체성을 강화해 온 것과 달리, 이곳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종합계획 수립자인 (주)명소의 황길식 박사는 인문, 사회적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주민과의 세밀한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조건들을 정리하고 달리도의 물리적인 공간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크게 두 갈래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활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달리도는 크게 남쪽의 1구와 북쪽의 2구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달리 1구가 논농사 중심의 오밀조밀 모여 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라면, 달리 2구는 열 가구 남짓한 마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주민들의 평균 연

령이 높은 것은 달리도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의 대다수는 한때 타지 생활을 했을지언정 유년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거나 섬 내 정주한 기간이 상당하다. 그만큼 느슨한 연대감을 갖고 있어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어촌뉴딜사업의 대상과 용도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소득사업과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위주로 정해졌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부수적으로 방문자를 위한 공간을 배려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하면서, 마을 공동체 시설 리모델링, 주민 소득사업 생산시설 신축, 커뮤니티 공간과 손님맞이 공간 확보 세 방향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가를 선정하였으며, 두 마을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버려진 옛 김가공공장을 휴게쉼터로 탈바꿈시키며, 수양홍도가공공장을 새로 짓고, 어촌뉴딜사업의 핵심시설인 ‘쉬어家’와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설계를 진행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기다리고 있다. 세 곳을 리모델링하고 두 곳을 신축하는, 모두 다섯 채의 집을 짓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마을의 중심: 복지회관 들

달리도의 복지회관은 다른 마을에서 흔히 보듯 아래층에 경로당이, 위층에 회합실이 있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동안 닫혀 있었지만, 1층은 접근이 쉽고 설비도 잘 갖춰져 마을회관으로서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2층은 가끔 열리는 마을 행사를 제외하면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면서 1층은 공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2층은 작은 숙소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 방향을 정하였다.

두 곳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있어 건축물이 놓일 수 있는 면적(건폐율 20%)이 매우 적었다. 이미 법적 허용 면적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1구 복지회관은 추가로 요청하는 주민공동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계획할 수밖에 없었고, 달리2구는 2층 부분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설비와 공간을 확보하는 정도에서 계획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단

©(주)모우재건축사사무소



달리1구 복지회관과 달리2구 복지회관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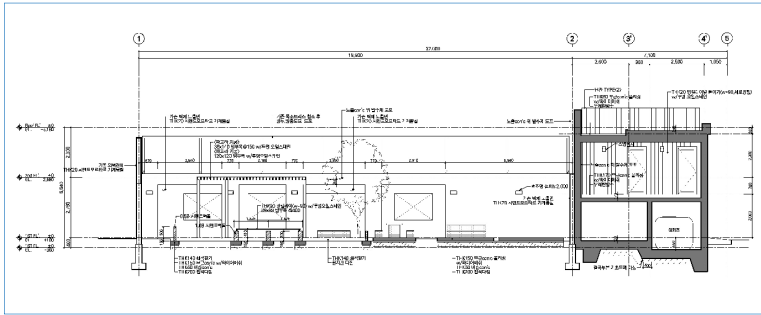
열이 부족하거나 방수가 취약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변형을 가하되 기존의 복지회관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을 취했고, 달리2구의 위층은 가변적인 벽체로 계획하여 숙소 및 회합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없어서 연로한 주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았던 2층 공간을 명절 때 찾아오는 가족이나 방문객 등 이방인을 위한 환대 공간으로 바꾸는 데 있어 모든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해주었으며, 마을의 중심공간이자 찾아오는 나그네를 위한 공간으로 복지회관을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시공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추가되어 소소하게 변경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을회관 리모델링의 경우 석면 자재나 내진설계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미 있는 설계를 진행 수 없다. 엄격한 석면관리체계에서 기존의 마감 자재에 대한 조사 작업이 병행해야 하고, 2층 이상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달리도의 경우도 석면조사와 정밀구조안전진단 등의 추가업무를 해야 했고, 설계기간과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다.

주민과 방문객의 휴게 쉼터: 옛 김가공공장

달리도 북쪽 끝에 위치한 김가공공장은 문을 닫은 지 30여 년이 지난 유휴 산업시설이다. 단층 작업장과 복층의 주택이 결합된 블록집으로, 현재는 폐허지만 미래에는 방문객들의 주요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곳이기



옛 김가공공장 단면도



옛 김가공공장 공사 현황

©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도 하다. 북부염전 방파제 끝에 있어 지붕에 오르면 소금밭과 목포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용도를 다한 작업장은 목조트러스의 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벽체는 갈라지고 목재는 부분적으로 삭아있었다. 지붕재도 석면 슬레이트여서 걷어내야만 하고, 바닥도 주저앉은 곳이 다수였기 때문에 건축물로서 기능이 다한 상황이었다. 쓸 수 있는 벽체와 트러스를 활용하되 하늘로 열린 공간으로 바꿔, 실내 작업장을 녹색 치유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기존 복층의 주택 부분은 노후도가 심하여 전부 철거하고 같은 형상으로 새로 지으며, 공공화장실과 전망대의 기능을 새로 부여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일이 다반사다. 김가공공장도 공사 중 조사해보니, 벽체가 기초 없이 세워져 있고 목조트러스의 가려진 부분의 손괴가 상당하여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공공의 쉼터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하고 옛 정취도 지켜야 하기에,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조성될 것 같다.

주민소득사업 생산기지: 수양홍도 가공공장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달리도의 주민소득사업으로 수양홍도 가공사업과 생선 반건조 사업이 있었다. 공공과 주민의 공동투자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 공정에 따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야만 하는 시설이었다. 설계공모에서 두 곳의 땅에 개별 건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설계

를 했었는데, 재원조달 및 사업성 문제로 생선 반건조 사업은 접어야만 했고 남은 예산은 마을 전체 사업인 ‘쉬어家’ 커뮤니티센터에 투입하기로 하고, 수양홍도가 공공공장만 짓기로 정해졌다.

주민들로 구성된 별도 법인을 세워 섬 한가운데 위치한 수양홍도가 자라는 과수원에 가공공장을 짓는 일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생산 공정에 대한 기준이 늦게 세워졌고, 감염병으로 주민과의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의사결정과정도 다소 느린 편이라 올해 수확한 결실로 생산품을 만드는 것은 어렵게 된 셈이다.

공사비도 넉넉하지 않아서 당초 계획과 달리 경제적인 재료로 설계를 진행해야 했는데, 세 개의 저장고를 포함하는 작업장과 법인사무실과 공공화장실이 있는 사무동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최종 주민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중과 배웅의 공간: 달리도 쉬어家

‘쉬어家’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달리도 어촌뉴딜사업의 중추 공간이다. 방문자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가 결합된 ‘달리도 쉬어家’는 목포로 연결되는 페리선이 도착하는 섬의 입구에 위치한다. 누구나 달리도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곳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쉬어家’가 지어질 이 대지 위에는 기존 건축물로 대합실이 막 완공된 상태였다. 대지 정면 중앙에 지어진 이 건물이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었기 때문에 ‘쉬어家’는 대합실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계획을 해야만 했다. 알박기처럼 장애요소로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하면 좀 색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았다. 기존 대합실 남쪽으로,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필로티로 조성된 통로가 놓여 있었다. 마치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암시하는 것 같기도 했으므로, ‘쉬어家’의 입구로 삼기로 했다. 달리도 섬마을 집들을 관찰하여 대표적인 크기의 집을 골라 대합실 뒤로 오밀조밀한 작은 방문자 마을을 만들고 싶었다. 농가한옥 한 채와 복층 나무집 한 채가 하나의 집을 이루고 돌담과 나무담장으로 공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 집을 구성하였고, 농가한옥과 나무집 사이 공간은 하늘로 열린 거실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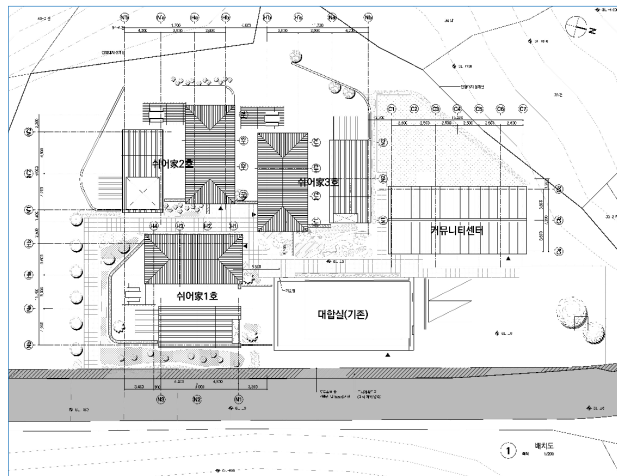
하도록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채마다 다른 가족이 머물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북쪽으로는 커뮤니티센터를 배치하여 주민 회합이나 방문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합실 사이로 마당을 두고 한편에 정자목을 심어 주민과 이방인의 맞이광장이 되도록 계획했다.

바다를 향한 조망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해안가 펜션과 달리, ‘쉬어家’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골목과 돌담, 꽃과 나무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동네가 되기를 희망했다. 일부 주민과 심의 전문위원들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곳은 수직의 전망대보다는 수평의 평안한 ‘집’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합실
통로에서 본
유달산과
목포대교



달리도 쉬어家
배치도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쉬어家 골목길



쉬어家 2호 하늘 거실



쉬어家 조감도

늘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풍경이 되기 어렵다. 산고개를 넘거나 골목길을 돌아 나와 움직임 속에서 찾아질 때, 그 장면은 깊은 감동을 준다. ‘쉬어家’ 골목길을 지나 대합실 통로 사이로 만나게 되는 유달산과 목포대교의 풍경은 그래서 더 값지다. 앞으로 나갈수록 더 넓어지는 목포 앞바다도 사람의 발걸음과 함께할 때 더 역동적으로 다가온다.

나가며

달리도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리 매력적인 섬은 아니다. 기암괴석이나 너른 백사장도 없고, 편의시설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방문자에게 매우 불친절한 섬이다. 대신 달리도에는 고즈넉하고 넉넉한 목가적 풍경이 있고 섬들을 배경으로 하는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바다 풍경이 있다.

정자(亭子)는 그 자체의 생김새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축형식이다. 달리도는 이런 정자를 닮았다. 유달산을 품은 섬, 다도해를 품은 섬. 대개 정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곳에 있듯이 달리도를 찾기 위해서는 다소 귀찮은 통과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제 어촌뉴딜사업으로 머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니 조금만 노력하면 편안한 정자 아래에서 돌도 없는 눈호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